

教育用 소프트웨어 크게 부족 -시스템 공학센터 성기수 소장 논문서 주장-

서울신문 90.11.20

국내의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부진이 컴퓨터 사용인구의 확산과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또 컴퓨터 교육이 정상화돼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와 더불어 정부차원에서의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지원 시스템개발과 음성 및 그래픽기능 등도 활용하는 다매체컴퓨터 연구의 필요성도 주장됐다.

시스템공학센터 성기수 소장은 최근 「선진국의 컴퓨터교육 현황과 우리의 방향」이란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지원은 극히 미약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국내에서 개발된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모두 2백 56가지로 日本의 12만 8천 7백여종, 美國의 1만 2천종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美國의 경우 수학(또는 산수)에서 미술 및 공작교육에 이르는 다양한 과목의 교육용소프트웨어가 게임형, 개인교수형,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및 시도)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되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놀이를 하듯 부담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그래픽과 영상 및 음성 등 컴퓨터 기능의 다각적인 활용이 활성화되어 상호작용 비디오디스크와 컴퓨터를 연결한 시스템, 그리고 콤팩트디스크(CD)와 컴퓨터를 연결한 동적인 영상처리시스템이 컴퓨터 교육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日本은 고등학교용 5만 8천여 가지, 맹아 또는 농이학생용 9천 6백여 가지를 비롯 모두 12만 8천 7백 여종의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세계 최고의 교육용 소프트웨어 창출국가로 군림하고 있다. 성 박사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학습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정보수집과 분석에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크게 배양시키는 등 정보화사회실현에도 직결되지만 교육적 고려없이 상업적인 이익에만 급급해 제작된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창의력과 사고

력 저하도 유발시킨다」며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체계적이고 국가적인 연구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